

정조·다산 리더십 토크콘서트

경재 토론! 21세기 정조와 다산에게 무엇을 물다!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열린 정조·다산 리더십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회 이후 화합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 연구소 실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안민석 국회의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도올 김용옥 교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염태영 수원시장, 광상욱 오산시장, 김진홍 화성시 부시장.

지역문화발전 길찾기에 용주사가 나섰다

용주사 효행문화원서 정조·다산 리더십 토크콘서트

효문화 살리기에 종교·학계 한 목소리 정조·다산 리더십과 목민정신 배우자 수원, 화성, 오산 시장 상생 협력 입장 밝혀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각계 목소리가 오가는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정조 대왕과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실천하자는 토크콘서트가 열린 것이다.

용주사(주지 정호)와 한신대(총장 채수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다며 학계 전문가, 지역 정치인,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효행교육원은 토요일 오후임에도 토론 열기가 가득했다.

토론자로 채수일 한신대 총장과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광상욱 오산시장, 김진홍 화성시 부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열린 토론을 전개했다. 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유봉학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희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학술적인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주로 정조와 다산의 리더십과 사상 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정호 스님은 “용주사가 위치한 용건릉은 효행문화가 문화유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효테마파크를 건립하는 한 현 효행문화 지킴이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정조와 다산의 리더십은 여러 문신을 비롯해 일반 서민들과 함께 경학하고 소통한데서 나온 것”이라며 “수원, 화성, 오산 단체장들은 대중들과 소통하며 효문화 창달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도 “유교문화가 현대사회에서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며 “민족정신의 근간인 충과 효 정신을 살리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또 “수원과 화성, 오산의 상생협력위 구성은 단계로서는 최초인 것 같다”며 “효문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구심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정호 스님의 발언 후 “불교가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는 불효의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오히려”라며 “부모와 함께 다른 중생도 모두 효로서 섬기고 공양하는 종교”라고 콘서트를 주관한 용주사에 감사를 표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사회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토론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감초 역할을 했다. 김용옥 교수는 또 “효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예수, 또 마호메드 등 여러 종교가 모두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후 토론회는 학계에서의 화성신도시에 대한 발전에 대한 문제점 등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청취한 지역 시장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봉학 한신대 교수는 정조가 건설한 화성 신도시에 대해 “실학의 도시”, 개혁의 시범도시’였지만 주먹구구식 보존정책을 반복해 내부적으로 문화유산 훼손과 왜곡의 상처가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지역 대학들이 교양과목으로 정조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불쌍한 백성들을 토호들의 횡포부터 막은 것이 다산의 목민정신”이라며 현대 정치인들이 다산의 목민정신을 배울 것을 주문했다.

시장들은 이들의 주장과 제안에 공감하면서 정조와 다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지역구 오산시)은 “화성에 세계 유일, 최대의 효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조와 다산의 정신을 복원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에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과 세 분의 시장이 있는데 화성 복원과 효 테마파크 조성을 산수화 정치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화성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또한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과대와 농촌진흥청이 이전한 자리를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를 수원시가 매입해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상욱 오산시장은 “깨끗한 정치를 하려면 정조를 배워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 실생활의 편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는 2부 학술 토론으로 이어지는 밤까지 계속됐다.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이명혜 씨는 “지역의 목소리를 시장들이 직접 청취해 인상깊었다”며 “사찰에서 지역 소통의 장을 마련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몇 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해도 대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날 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최성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효문화 요소 갖고 있어.
지역발전에
종교계도 힘 보태야”
- 도올 김용옥 교수

“효행문화
세계에 펼쳐는데
용주사를 비롯한
수원 화성 지역이 적격”
-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사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발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पाल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장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국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